

거리측정기 시장 1위... '리오프닝·캐디 선택제' 이중 수혜

株라쿨라의 종목

골프 전문 IT 업체 '브이씨'

세계 최초 음성형 거리측정기 개발 투자포인트, '플랫폼 업체 성장성' 리서치알음 "적정주가 1만8500원"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브이씨'에 대해 "캐디 선택제의 확대로 캐디를 대체하는 거리측정기 시장이 본격 성장 구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리측정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브이씨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브이씨는 골프용 거리 측정기 등을 제조하는 골프 전문 IT 업체로 지난 2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 실시간 핀위치제공단말(APL), 초정밀측위기술(RTK)을 보유한 거리측정기로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거리측정기, 론치모니터, 시뮬레이터가 있다.

이동현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GPS를 기반으로 하는 시계형 거리측정기는



브이씨 제품 라인업

국내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이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음성형 거리측정기는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레이저형 거리측정기의 시장점유율은 30%로 글로벌 1위 업체인 미국 부쉬넬과 시장을 양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대 골프장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것도 브이씨만의 특징"이라며 "그린의 언돌레이션과 코스를 라이카(Leica) 3D 스캐너와 GNSS 기준장비를 이용해 직접 스캔해 전 세계 3만 8000개 골프코스과 정밀지형 데이터를

확보했다. 로우(Raw) 데이터를 정밀 3D 이미지로 변환해 골퍼에게 골프장 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MZ세대부터 중년 여성까지 골프에 대한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조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발표로 골프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캐디 선택제·노캐디제 도입에 주목해야 한다.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게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용자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안

전사고를 대비해 경기 보조응용프로그램(어플)이나 개인용인공지능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동현 연구원은 "캐디 선택제를 시행하는 골프장은 2018년 말 75개소에서 2021년 10월 기준 19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캐디 선택제가 확대되면 캐디를 대체하는 거리측정기의 보급율도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브이씨의 가장 큰 투자포인트로는 '디바이스에 기반한 플랫폼 업체로의 성장성'을 꼽았다.

그는 "이미 브이씨는 개인이 이용하는 거리측정기 하드웨어로 시작해 골프장에 APL, RTK 시스템을 구축했고, 실제 골프 연습장에는 VSE를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며 "여기서 모은 2억건의 필드 데이터와 스윙분석 데이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업체로 변모 중"이라고 했다.

리서치알음은 브이씨의 2022년 매출액 716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을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3.3%, 54.8% 증

가한 수혜다. 거리두기 해제 등 리오픈(경기 재개)에 따른 골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로 유입된 골프 인구 계층이 젊은 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는 과도한 우려라는 설명이다.

주가 전망은 "긍정적" 적정주가는 1만8500원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적정주가는 2022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1427원에 추가수익비율(PER) 13배를 적용했다"며 "PER 13배는 골프·스포츠 IT 테크 관련 기업 비스타 아웃도어(Vista outdoor), 가민(Garmin), 파인디지털, 골프존의 2022년 선행 추가수익비율(Forward PER)의 평균을 이용해 산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버행 이슈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장 후 3개월 매각제한 물량은 한국투자증권의 40만5000주(5.8%)가 있으며, 최대 주주의 상장 후 2년 6개월 매각제한 물량은 244만8940주(35.0%)가 있다"며 "따라서 투자시 오는 5월 24일에 해제되는 3개월 매각제한 물량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ikyung96@metroseoul.co.kr

"300兆 글로벌 시장 호령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인천~서울 지하도 열리나... 수혜 단지 '눈길'

IPO 간담회

'윈스토어'

광고사업 진출로 신규 수익 확보 방침 희망가 밴드 3만4300원~ 4만1700원

국내 대표 앱마켓 '윈스토어'가 5월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9일 윈스토어는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300조원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6년 출범한 윈스토어는 양대 글로벌 사업자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 유의미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윈스토어의 성장은 2018년 7월 업계 최초로 앱마켓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9일 윈스토어가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한 윈스토어 대표가 기업설명에 나섰다. /박미경 기자

20%로 낮추고, 자체 결제를 허용해 수수료를 5%로 책정했다. 또 이용자에게도 통신 3사 멤버십 할인 및 적립을 매일 10%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수수료 정책변경 이후 앱스토어는 2018년 3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14개 분기 연속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해 1조1319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윈스토어는 양질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에 진출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 국내외의 유수의 애드테크 기업들과 함께 구축한 광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올해 2분기 보상형 광고를 개시하고 3분기에는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윈스토어 광고센터'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윈스토어는 광고를 보는 고객들에게 윈스토어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게임과 앱 개발사들이 광고 수익은 물론 추가적인 결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윈스토어의 총 공모주식수는 666만 주, 공모 희망가 밴드는 3만4300~4만1700원이다. 오는 5월 9~10일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 후 12~13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며, 공동 주관사는 SK증권이다. /박미경 기자

2022년 1차 예타 대상사업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 등 선정

정부가 올해 첫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분양되는 신규 단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산업부·해수부·행안부 등 4개 부처의 20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국토부의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의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및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행안부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들 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을 선정해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특

히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도 담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타대상사업 수혜지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DL이앤씨는 이달 인천 중구 항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항동 일원에 1990년 이후 처음 공급되는 주거단지다. 해양관광, 문화거점 등 친수 미항(美港)으로 개발이 추진 중인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위치하는 탓에 투자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SGC이테크 건설은 다음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화곡동 더리브 주상복합' (단지명 미정)을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신월IC와 인접해 있다.

한화건설은 연내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짓는 '한화 포레나 안산고잔2차' (단지명 미정)를 분양한다. 단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과 가깝다. /양희문 기자 yhm@

금투협, K-OTC에 '와이즈에이아이' 신규 등록

AI 기반 기업 첫 등록... 내일부터 거래

금융투자협회가 와이즈에이아이의 K-OTC 시장 신규 등록을 승인하고 오는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와이즈에이아이는 2020년 5월 와이즈케어의 인공지능(AI)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된 기업으로 AI 기반 의료지원 플랫폼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핵심제품 SSAM-VICTOR(의료통합지원 솔루션 AI 기반 비주요케어센터)를 통해 병원의 안

내·예약 및 CRM관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격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넘버원 비주요케어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K-OTC 시장 진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향후 AI 기반 의료지원 플랫폼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계 41억원, 부채총계 11억원, 자본총계 30억원, 매출액은 8억원을 기록했

다. 올해 AI바우처사업으로 명지병원 등에 10여억원의 매출이 확정됐으며 올해 중 50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달현 금융투자협회 시장관리본부장은 "와이즈에이아이는 AI 기반 기업의 첫 등록 사례로 K-OTC시장의 저변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오는 11일부터 증권사 H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 가능하며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주가의 ±30%다. /박미경 기자

KB자산운용

사모 해외부동산 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이 사모 해외부동산펀드를 출시한다.

'KB 프라이빗솔루션 일반사모부동산 펀드 제1호'는 미국의 부동산 전문 운용사 스타우드 캐피탈그룹의 대표펀드인 '스타우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컴 트러스트펀드'(Starwood Real Estate Income Trust)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2018년 12월 설정된 SREIT펀드는 글로벌 연기금과 큰손들의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2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펀드로 성장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3억원이고, 환헤지형(H)과 USD기준가형(USD) 중 선택 가능하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총보수는 연 0.94%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영업일간 KB국민은행 PB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박미경 기자